위기가구 긴급지원 호응

익산시, 정부 지원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대상 대폭 완화… 4인 가구 기준 90만원 지급

익산시가 민관협력으로 추진 중인 '익산형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원 범위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정부 지원과 별개로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는 21일부터 실직, 질병, 자살 등의 사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산시민이 지정기탁 성금과 민간 조직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손을 맞잡고 민관협력으로 추진된다.

기존 정부의 긴급지원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했다. 4인 가구로 보면 월 소득이 기존 356만원에서 474만원까지 상향조정 되는 셈이다.

긴급 지원되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90만원이 지급된다.

주 소득원의 실직이나 사망,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일시적인 위기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다만 정부의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비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위기가구를 포함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통리장·이웃 주민 등 누구나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은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 읍면동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민과 단체들로 조직된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3,23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자연재해 예방' 국비 대거 확보

총 230억원… 내년부터 상습 침수지역 방재시설 설치공사

익산시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해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 11일 관련 국비 23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인 여산 재해위험개선 지구는 총 380억원(국비 190억원, 도비 76억원, 시비 114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 신설, 우수관로, 소하천 정비 등이 실시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정비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여산면 대부분 지역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산면은 지난 2010년 내린 폭우로 대부분이 침수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재난 당시 응급복구는 시행됐으나 추가적인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풍수해 생활권 공모사업'에 응모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어 추가 선정된 춘포면 판문마을은 총 40억원(국비 20억원, 도비 8억원, 시비 12억원)이 투입돼 펌프시설, 배수로 등을 신설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판문마을은 배수로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항상 물이 고여있고 호우 시 마을 전체가 잠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지속적으로 낙석이 발생하고 있는 낭산면 군도 15호선은 40억원(국비 20억원, 도비 8억원, 시비 12억원)이 투입돼 사면을 정비하는 공사가 추진된다.

앞서 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3년간 총 1천억원(국비 500억, 도비 200억, 시비 300억)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도비만 약 700억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도심 침수예방을 위한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230억원, 목천포천 하류 펌프용량을 증설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50억원, 여산면 소재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80억원 등이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예산 편성을 모니터링하고 공모 전부터 한발 앞서 나가는 시의 선제적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시는 '2021년도 풍수해 생활권 공모사업'이 지난 4월부터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 지난해 9월부터 해당지역 점검, 주민탐문조사, 사업 필요성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아·태 농생명 유전체 온라인 심포지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생물학과 최동수 교수)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군산대학교 농생명융합기술센터 온라인 채널에서 "제6회 아시아·태평양 농생명 유전체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농생명 유전체의 최신 연구결과 및 정보들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연구를 활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다.

올해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각국의 농생명 유전체 연구 결과 활용 현황이라는 주제로 뉴질랜드 전문가 1인, 미국 전문가 1인, 일본 전문가 1인, 중국 전문가 2인을 초청하였고, 국내 농생명 유전체 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대학교수,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연구진 및 학생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석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지난 11일 전통시장인 여산시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화재안전컨설팅 및 안전저해요소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익산소방서, 여산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현장지도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지난 11일 전통시장인 여산시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화재안전컨설팅 및 안전저해요소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현장지도행정은 관서장이 화재취약대상물인 전통시장, 중점관리대상, 위험물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화재위험성 사전 진단을 통해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은 특성상 건물 노후화, 주변 건물 인접성이 높아 화재 위험성과 연소 확대가 쉬워 대형화재로의 확산 우려가 높아 철저한 지도와 자율적인 관리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덧붙여, 소방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233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전북에서도 8건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1일 관서장이 직접 여산시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내부 화재위험요소 확인 및 사전 제거 등을 통해 취약요소를 꼼꼼히 살폈으며, 끝으로 상인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시장내 안전관리 당부와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도 잊지 않았다.

전 서장은 "전통시장 화재건수는 많지 않지만 점포가 밀집돼 있고 화재취약시간대 화재 발생율이 많아 한 번의 화재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화재예방점검 뿐 아니라 점포주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공약이행률 77.86%

총 169개 중 73개 이행 완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77.86%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5대 분야 169개 공약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과 개별사업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소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해당 국·소장 및 공약사업 추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전체 169개 공약사업 중 이행완료 된 사업은 총 73개로, 올 상반기 대비 새롭게 완료된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야간 활용 프로그램 개방운영, ▲군산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군산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어린이 숲체험원 조성 확대, ▲학교앞 가로등·인도 확충 등 18개 이며, 80% 이상 이행사업이 35개, 50% 이상 이행사업이 40개, 50% 미만인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평균 이행률은 77.86%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사업"이라며 "내년이 민선 7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인 만큼 임기 내 모든 공약이 이행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는 공약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행현황을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오는 1월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기자

지역 소식통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군산시,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방역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45명이며, 선발된 인원은 공공청사,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방역사업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기간은 내년 1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추진되며,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1일 4시간,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4대 보험 가입 및 주·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접수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연말 모임 취소 시민에 '상품권'

군산시가 연말 모임을 취소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해 자발적으로 연말 모임을 취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안전한 연말' 인증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연말 모임을 취소하겠습니다.'를 적은 종이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을 올리면 된다. 페이스북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오는 28일에 발표한다. 시는 1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상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기자